

# 전북도 '농식품 ICT 공모' 4개 선정

###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전국 9개 중 최다 차지... 전체 예산의 40%인 5억 6000만원 지원받아

전북도가 농식품 ICT 융복합 공모 사업에 전국 최다 사업선정으로 국비 확보는 물론 창조농업의 선도 주체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이하 ICT 모델사업)'에 도의 4개 사업이 선정됐다.

ICT 모델사업은 농업·농촌 현장에 ICT를 접목해 현장 활용성과 경제성 검증 등을 통해 확산 가능한 성공모델을 발굴·보급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이번에 농축산부가 선정한 ICT 모델사업은 총 9개로 전북도는 4개 사업을 신청해 4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도의 사업은 ▲공정육묘 자동생산 및 접촉포관리 ICT 적용기술(장수군) ▲한우통합 활용정보화 시스템 구축(정읍시) ▲노지방제를 위한 저압식 U-ICT 무인방제 시스템(진안군) ▲진안홍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진안군) 등이다.

이 중 '전북지역 특화한우 통합활용정보화시스템 구축'의 경우 도, 전북대,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부 등이 참여하고, 한우의 종합적인 유전적 개량과 가공·유통 플랫폼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앞으로 도에서는 4개 사업에 대해 총 14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과제당 6억원 내외)해 추진한다. 이중 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5억 6,000만(총



도민인권 지킴이단 발대식 1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 인권지킴이단 발대식 및 인권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위촉장 수여를 하고 있다.

예산의 40%)를 지원 받는다.

도는 이번 성과에 대해 신청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밀착 행정지도 등 철저한 준비와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참신한 과제 발굴과 목표 설정 및 계획의 타당성, 지역연계 효과 등

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차별화된 논리개발 분야에서 돋보여 평가위원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렇게 국가전략사업에 큰 성과를 거둔 데는 관련기관·업체 등과 적극

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유기적인 협력이 밑바탕이 되었다"며 "생산분야에 ICT융복합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농민들과 함께하는 산타농정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지방공공기관 불합리한 관행 고친다

### 행자부, 지방공사·공단 571건 과제 8월까지 일괄 정비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자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의 영역을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우선 행자부는 지방기업의 숨은 규제 개혁에 나선다.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지방기업 예산은 모두 56조4000억원으로 17개 시·도 전체예산 184조6000억원의 1/3 수준이다.

행자부는 1단계로 전(全)지방공사와 공단 143개를 대상으로 발굴한 571건의 과제를 오는 8월까지 일괄 정비한다.

이후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지방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내규 및 불공정행위를 발굴해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규제개혁도 단행한다. 행자부는 그동안 유지보수에 중점을 뒀던 공유재산 기조를 기업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장기업의 투자유치 해소 위한 지역별 맞춤형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향식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일괄 개선에 들어간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박용주 기자

##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7개 부문 시상

18일 전북도는 14회째를 맞는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선정해 전주 르윈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상패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은 매해 도내 시군 및 경제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매출성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제품개발, 장수기업 부문에서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새로이 창업기업 부문, 경제단체 부문을 신설해 총 7개 부문을 선정했다.

앞서 도는 도내 우수중소기업의 많은 참여와 공정한 선발을 위해 지난

3월7일부터 14일간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에 평가기준을 사전 예고하고 3월21일부터 4월7일까지 도내 시군 및 경제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접수하는 등의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7개 부문 21개 업체가 접수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도내 기업지원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지원기회 협의회 심사를 통해 7개 부문의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선정·확정했다.

한편 수상자에게 경영개선보조금으로 각 부문당 3,400만원씩 총 2억 3,800만원을 지원한다. /정영수 기자

## 송하진 도지사 임실 민생탐방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8일 시·군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임실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송 지사는 심민 임실군수 등과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장을 방문하고 평지 경로당과 청운 귀농협의회 회원들과 차례로 진솔한 대화를 가졌다.

송 지사는 청운 평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이 노후생활의 행복증진소의 역할을 하도록 경로당 독거노인가족화 사업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주민화합이 잘 되고 있는 청운면 귀농협의회 회원과 만남을 갖고 귀농귀촌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귀농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청운면은 지역민과 매년 교류행사 등 주민화합이 잘 되는 것 같다"면서 "정착 초기 어려움을 행정과 귀농협의회 회원,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 도,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본격 추진

### 2020년까지 180억 투자... 식품 등록 12건·개발 29건·상품화 26건·지적재산등록 19건 등 목표

전북도가 도내 향토자원을 고부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해 식품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18일 전북도는 도내 향토식품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개발·생산하는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을 2020년까지 총 180억원(2016년 39억원, 국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향토산업 육성 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으로 향토식품의 지속적인 건강 기능성 연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에 등록하고 유통·판매하는 사업이다.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될 경우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품포장에 특화된 기능성(예를

들어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임실 엉겅퀴)을 표시해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제품 매출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앞서 도는 2015년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사업자 공모로 도내 지자체 연구소 4개소와 시군 향토자원사업단 2개소 등 총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앞으로 도는 건강식품 개발을 강화하고 참여기관 역할 점검, 로드맵 재정비, 전문가 컨설팅, 전략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동물실험, 임상시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는 향토식품의 기능성 규명과 함께 건강기능식품등록 12건, 기능성식품개발 29건, 상품화 26건, 지적재산등록 19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향토자원의 기능성 연구대상은 원주 생강(체지방감소와 면역증진), 진안 홍삼(고중성지방혈증 개선, 면역과민반응 개선), 순창 청국장(면역개선), 고창 복분자(혈압 조절 및 남성갱년기 건강), 부안 오디뿌리(혈당 및 혈행개선) 등이 있다.

또한 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사업단·참여기관 등과 함께 추진협의회를 4회 운영했고 앞으로는 2개월마다 운영할 계획이다.

도 강승구 농축산식품국장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은 최종적으로는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을 발굴해 도내 향토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품목별 재배와 관로 확대를 농가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도, '보건사업 성과대회' 복지부장관 표창

### 오늘 최우수 남원시 1250만원·우수 전주시 800만원 포상금

전북도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전략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6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행사는 '2016년 제8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로 19일 서울 AW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도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육구와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건강생활실천, 영양개선 등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이번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북도가 의료소외계층 비만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키썩썩 몸튼튼' 프로그램을 공공의료기관 전북대병원, 군산·남원의료원과 연계해 지역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남원시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남원 1,250만원, 전주 800만원)을 받게 된다. /정영수 기자

### 전주시민을 위한 무료 특강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과 전북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원우회 공동으로 전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삶의 즐거움과 명랑한 사회를 위하여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성학 및 부부대화기법 특강으로 실시됩니다.



강사: 주선희

-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 KBS 사회교육원 강사
- 인성학박사 1호
- KBS 아침마당 패널

강의주제: 행복을 부르는 인성



강사: 김양욱

-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대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KBS 아침마당(3회) 출연자

강의주제: 부부대화기법

©일시: 2016. 5. 25(수) 오후 7시 ©장소: 전주 시청 강당  
 ©문의전화: 231-6669, 285-6676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주최: 한국스피치 & 리더십 컨설팅**  
**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 063-288-9700

www.jjmaeil.com